

투데이



여수세계박람회 D-15

현대차·삼성·LG·포스코·GS칼텍스·SKT·롯데 '7개 기업관'

한국 첨단기술 세계에 뽐낸다

한민족이 세계박람회에 처음 참석했던 지난 1899년(고종 26년)과 리만국박람회에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갓, 모시, 드자리, 가마 뿐이었다. 123년이 지난 오는 5월, 우리는 드디어 세계 각국을 여수로 초대해 한국 대표 기업들의 첨단 기술을 뽐낼 수 있게 됐다.

여수세계박람회(5월 12일~8월 12일·이하 박람회) 개막이 다가오면서 국내 대표 기업들이 막바지 전시장 연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외국 기업의 참

여는 없지만 현대차그룹과 삼성, LG, 포스코, GS칼텍스, SK텔레콤, 롯데 등 7개 국내 기업이 색다른 전시를 선사한다.

현대차그룹은 관람객이 직접 다양한 차량과 미래 이동 수단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전시로 펼쳐진다.

삼성관은 빛·바람·물로 구성된 공연을 통해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계획이며,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LG관은 설치 공사 후 남은 자

재를 전시관 내부 휴게시설의 의자와 벤치, 테이블로 만들었고, 이 과정에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해 아기자기한 불거리를 제공한다.

GS칼텍스관은 독일의 세계적 건축 디자인 회사인 아틀리에 브루크너가 연출을 맡았고, 에너지의 지속성과 성장을 관람객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SK텔레콤관은 미디어아트 등을 체험하면서 사람과 기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상이 모두 행복해지는 세상을 표현한다.

이 밖에 롯데관은 각양각색의 퍼포먼스와 세계 최대 크기의 '라이더(rider) 영상관'을 설치, 실제 놀이기구를 타는 듯한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 포스코관은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슬래그로 만든 '트리톤 바다숲'을 전시한다. 트리톤은 빨고둥을 불어 거친 파도를 잡아우는 그리스 신화 속 신이며, 포스코가 만든 인공이초 브랜드다.

/오피니언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박람회 성공 우리가 책임집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자원봉사자들이 26일 여수시민회관에서 발대식을 열고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수시는 지난 3월 5500명의 자원봉사자를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5월 11일 전야제부터 8월 12일까지 단체 책임제를 통해 종합상황실과 안내소, 시내 주요 도로변과 주차장 등 142개소에 배치되어 봉사 활동을 펼치게 된다. /동부취재본부=김정희기자 chkim@

5월5일 '프리오프닝' 입장권 배송 대란

보름가량 늦어져... "15만명 예매에 허둥대나" 비난

여수세계박람회(5월 12일~8월 12일·이하 박람회) 시범 운영 행사인 '프리 오프닝'(5월 5일)의 입장권 배송이 길게는 보름가량 늦어지고 있어 관람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는 박람회 티켓은 비싸게는 4만원이지만, 개막전 열리는 프리 오

프닝을 이용하면 3000원에 전시를 감상할 수 있어 관람객이 예상보다 폭주했기 때문이다.

26일 박람회 조직위는 "당초 프리 오프닝에 11만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15만명이 예매를 마쳐 입장권 발송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고 밝혔다.

조직위 관계자는 "프리 오프닝 입장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 1일 예매를 시작한 지 5

일 만에 6만명이 신청을 마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이 때문에 판매대행 사인 인터파크가 입장권 발송 업무가 폭주해 배송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예매를 마친 관람객들은 조작위 홈페이지에 "관람객 1000만 명 넘게 유치하니 고작 15만명 몰렸는데 허둥지둥거리느라"는 등의 비난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입장권 판매 대행사가 모든 발송 작업을 마쳐 조만간 관람객들에게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기자 kroh@kwangju.co.kr

과거 보러 한양가던 '삼남길' 전남구간 완성



땅끝~나주~광주~장성 14코스 228km

전남도, 내일 백양사역 광장서 개통식

조선시대 청운의 꿈을 품고 서울로 가던 과거길인 '삼남길' 전남 구간이 완성됐다.

삼남길은 조선시대 10대 대로 가운데 가장 긴 '전리 길'이었고, 전남 구간은 해남 땅끝에서 시작해 강진~영암~나주~광주~장성에 이르는 14개 코스 228km다.

전남도는 28일 장성군 백양사역 광장에서 관계공무원, 코오롱인더스트리(주) 관계자, 삼남길 개척단 및 관련 카페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연다.

삼남길 전남 구간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삼남길 개척단이 직접 걸으면서 아직 남아있는 옛길, 숲길, 해안길 등을 연결해 복원했다.

도는 연차적으로 이 길에 화장실·숙소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삼남길은 장성에서 전북의 완주, 익산, 충남의 논산, 공주, 천안 경기의 평택, 수원, 서울의 남태령, 남대문까지 이어진다. 과거 주로 군사용이나 진상품도 이동로였고, 과거를 보거나 장사를 하기 위해 한양을 오가던 길이다.

/오피니언기자 kroh@kwangju.co.kr

전남 바다낚시로 지난해 240억 벌었다... 척당 4100만원

주 5일 근무 확산으로 바다낚시를 즐기는 경태공이 늘어 지난해 전남지역 낚시 어선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4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바다낚시 어선을 이용한 사람도 전년보다 5.6% 늘어난 237만명이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6일 발표한

'2011년 낚시어선업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의 낚시 어선은 599척이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57만4669명이 깨끗한 전남 바다에서 손맛을 봤다.

또 어선 한 척당 수입도 4100만 원으로 전국 평균 2800만원을 월씬 웃돌았다.

낚시 어선업은 10t 미만의 배를

이용해 승객을 끌바위 등지의 바다낚시터로 대여주거나 선상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이다.

전국적으로도 낚시어선 이용이 활발한 곳은 전남을 비롯해 충남, 경남 순이었고 이를 3곳의 이용객·수입·선박 수는 전체 60%를 넘었다.

/오피니언기자 kroh@

철도공단, 호남고속철 차량디자인 시안 공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6일 2014년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에 투입될 차량의 외형 및 실내 디자인 시안을 공개했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한 고속철도차량 외형 디자인은 1안 <사진>이 탄환이 날아가는 형상을 모티브로 스피드한 이미지와 포도의 풍

성한 느낌을 주는 와인색, 2안은 공기와 물의 흐름을 모티브로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이 드는 하늘색, 3안은 상큼·발랄함을 모티브로 풍요로움과 희망의 느낌이 노란색 등이다.

철도공단은 이 차량 디자인을 객차 실물모형으로 제작, 오는 6월 서울,



광주 등에서 공개 전시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시·군통합 찬반 여론조사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통합을 건의한 지역 중 목포·부안·신안, 군산·김제·부안 등 전국 36개 시·군을 확정, 27일부터 3주간 통합 찬반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표본은 만 19세 이상 주민, 인구규모에 따라 최소 1000명에서 최대 1500명의 의견을 묻는다. 단, 통합 대상 시·군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표본수를 조사한다.

/오피니언기자 kroh@kwangju.co.kr

봄맞이 부동산 무료특강

2012년 충선과 대선에 따른 부동산정책과 재테크 성공전략

-최근 부동산시장전망, 부동산경매, 투자투자성공전략-

강사 : 정영수 전남대 경영학박사 (한국생산성본부 강사)

"총선이후에 부동산대책과 재·테크 성공전략"

-전남대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주임강사

-전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MBC-TV방송국 강의

강사 : 박관식 원부동산연구소장

"혼란기시대 부동산시장 예측과 소액으로 성공투자전략"

-MBC-TV 경제교양강좌, YTN TV고정출연, 한국전력 등 기업체 출강

일시

(선착순 전화접수 100명마감)
2012년 4월30일 오후2시30분

특전

- 강의자료 무료제공
- 참가자 다와옥션 경매이용권 3만원 증정
- "공인중개사 49일 합격작전" (3만5천원)추첨 증정

현대백화점

062)510-8151~2
H.P 017-613-1808

소변보기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1. 대상자

- 45세 이상 연령의 남성
- 현재 하루날(Harunal)과 같은 알파 차단제를 복용하고 있지 않은 환자

2. 연구 시험 기간

- 최대 5개월

3. 참여 이익

- 본 시험에 참여하심으로써 받게 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 합리적인 교통비를 지급 받게 되십니다.

4. 본 연구 시험의 목적

- 이 시험은 시험용 약물이 BPH (전립선비대증)증상 치료에 효과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5. 참여 병원

- 전북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

무등빌딩임대



임대문의 062)222-0527

참여를 원하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번호 및
근무 시간 | 010-5159-4210 평일 9시~6시